

‘닭’대신 ‘장어’... 달라진 복날 보양식



초복을 하루 앞둔 11일 대한적십자사 수완동 봉사회(회장 박미옥)는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에 사는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형마트 닭·오리고기 판매 급감
보신탕 혐오식품 인식 발길 줄여
전복·낙지 등 수산물 수요 상승
초복 앞 민어·하모 가격 ‘썩춤’



람 취급을 받는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신탕이) 혐오식품으로 인식되면서 복날이면 동료들과 함께 대표적 스테미나 음식으로 꼽히는 하모나 장어구이 등을 먹고 있다”며 변화한 복날 트렌드를 전했다.

광주시청의 한 공무원도 “한때는 복날이면 직장 선배들과 함께 보신탕 맛집을 찾아가곤 했는데, 최근엔 보신탕이란 단어조차도 듣기 힘들어졌다”면서 “이제는 보신탕이 일부에서 찾는 특별식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복날=닭·보신탕’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 여름철에 닭이나 오리 등 육류보다 장어, 낙지 같은 수산물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늘면서 보양식 ‘트렌드’(trend)가 바뀌고 있다. 1000만 애국가 시대를 맞아 한때 복날 음식으로 각광받던 ‘보신탕’(개고기) 문화도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11일 광주지역 5개 이마트에서 판매된 닭고기 판매율(6월10일~7월10일 기준)은 ▲2015년 49.4% ▲2016년 47.2% 올해 41.8%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도 지난해 13.3%에서 9.1%로 판매율이 급감했다.

반면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장어·전복·낙지 등 수산물은 여름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닭·오리고기 가격이 오른 것도 이런 현상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장어는 같은 기간 3.8%→5.5%→7.2%, 전복은 22.2%→23.8%→25%로 매년 여름철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낙지도 지난해 10%에서 올해 16.7%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삼복더위에 양반은 민어, 상민은 보신탕을 먹는 다’는 옛말이 있듯 여름철 바다 보양식을 대표하는

민어는 물론, 하모도 초복을 기점으로 몸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최근 목포수협 위판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민어의 양은 평균 500kg 정도인데, 붙철 1kg당 1만~2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민어 가격이 초복을 앞두고 4만~6만원까지 뛰었다.

여수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하모도 하루 평균 70~80kg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으며, 1kg당 3만 6000원~4만5000원 선에 팔리고 있다.

보양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줄어 당분간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수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신탕은 ‘아 옛날이여’를 회상할 정도로 역사속 음식으로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작장인 김원웅(48·광주시 북구 양산동)씨는 “요즘은 사무실에서 보신탕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사

원전비리 잡는 ‘특별사법경찰’ 떴다

한빛원전 등 감시 대상... 수사권 확보 단속 효율성 높여

앞으로 영광 한빛원전 등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이용 기업, 정부출연 연구원 등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 비리가 발생할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원안위)는 11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읍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한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

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원자력 관련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읍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7일 문화전당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북 콘서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북 콘서트가 열린다. 무당벌레필름과 조인출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기념관 3관(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소설 ‘임을 위한 행진곡’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각본·연출을 맡은 박기복 감독, 소설을 쓴 이원화 작가, 영화 출연 배우 등이 참석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저자 사인회, 식전 공연 등이 진행되며 박 감독, 이 작가가 패널·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 작가는 지난 2006년 광주일보로 등단, 광주일보문학상을 받았다. 소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개봉 예정인 영화를 위한 행진곡의 각본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집필됐다. 박 감독의 원작 시나리오를 이원화 작가가 소설로 묶었다. 소설은 1980년 5월을 중심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탄압 등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밝혀낸다. 행사 문의 062-367-770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장마 주춤해지자 ‘썸통 더위’

광주·전남 12곳 폭염 주의보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다시 폭염이 찾아왔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장흥, 화순, 나주, 함평, 영암, 보성, 담양 등 전남지역 7곳에 폭염

주의보를 발효한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11시부터 곡성, 구례, 광양, 순천 등 전남지역 4곳에 폭염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12일 광주·전남지역은 폭염특보 1곳, 폭염주의보 11곳으로 확대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때, 폭염특보는 35도 이상이 2일 연속 지속할 때 발령된다. /김한영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7 해질 19:49 달출 21:49 달몰 08:05

온열질환 조심
 야외 활동 자제하고 수분 섭취에 신경쓰세요.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23/34	보성	맑음	21/32
목포	맑음	23/30	순천	맑음	24/33
여수	맑음	24/31	영광	맑음	22/32
나주	맑음	22/33	진도	맑음	21/31
완도	맑음	23/32	전주	맑음	24/33
구례	맑음	22/33	군산	맑음	23/31
강진	맑음	22/32	남원	맑음	23/33
해남	맑음	22/31	흑산도	맑음	21/28
장성	맑음	21/32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남~남서	0.5	남~남서	0.5
남해서부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서부	서~북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서부	서~북서	0.5~1.5	남~남서	0.5~1.5
남해서부	남~남서	1.0~2.0	남~남서	1.0~1.5

◇ 물때

지역	밀물	썰물
목포	09:27	04:16
	21:26	16:14
여수	04:53	10:51
	16:46	23:22

◇ 주간 날씨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씨	☀	☀	☀	☀	☀	☀	☀
기온	24/34	25/33	25/32	25/32	25/33	25/33	25/33

◇ 생활지수

- 경고: 식중독
- 매우높음: 자외선
- 높음: 피부질환

아로마라이프 배

제7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7년 9월 3일~11일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참가신청

- 참가 신청 기간: 2017년 7월 12일(수) ~ 7월 21일(금)
- 구비서류: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될 수 있음

참가팀수

무등·광일 토너먼트 각16개팀(총 32개팀)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 무등 토너먼트: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으며 선수로는 1명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음(단 투수·포수 금지)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광일 토너먼트: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능)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시상

-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 최우수감독상
- 최우수선수상
- 우수선수상
- 최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주관: GBSA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